

뉴스초점 **새정치연합 개혁공천 드라이브, 지역 정치권 초긴장**

또 호남... 현역 30% 이상 물갈이 '물지마 지지' 원죄... 표심이 결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공천'이 호남지역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혁공천'의 향배에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공천 드라이브에는 기초선거 무공천 반복 과문의 여파를 극복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리더십 부재로 흠집이 난 '새정치'의 이미지를 복원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공천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직 기득권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일관한다.

이 같은 지도부의 강력한 개혁공천 드라이브에 호남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다.

安 배려 '나눠먹기' 시각도 민주계-새정치 갈등 조짐

당장 현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중 최소 30% 이상이 물갈이 될 것이라는 소문마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 지역 정치권의 비주류 및 정치 신인 세력이 대거 합류한 점은 현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밥줄마저 설치게 하는 주요인이다.

하지만, 개혁공천 드라이브에 장애물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당장, 개혁공천 갈라파고스의 이면에는 '지분 나눠먹기' 공천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크다. 현역 물갈이를 통해 안철수 공동대표 계파 인사들이 대거 공천장을 가져가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중앙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의 30%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두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시·도당에서의 공천을 놓고 구 민주계와 구 새정치연합 인사들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크다. 시·도당 공심위가 갈등을 진화할 수 있는

역량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 시도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선거 결과가 곧 총선 기반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두고 볼 수만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5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총회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불개입'을 놓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단채로 반발하는 촛국이 벌어졌다.

특히 개혁공천의 이면에는 호남의 '불편한 현실'도 담겨있다. 개혁공천의 주요 대상지로 늘 호남이 꼽히고 있는 탓이다. 호남이 정치적 뒷밭이자, 정치적 기득권 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이다.

호남 민심이 '물지마 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역차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개혁공천 논란과 관련, 트위터에 '호남이 봉이나'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혁공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칙 적용과 지분 나눠먹기 등에 대한 호남 민심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



청보리밭, 초록 바다속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인 15일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녹색 빛깔 가득한 '청보리밭 길'을 거닐고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청보리밭, 그 이야기 속으로'를 주제로 19일 개막해 5월11일까지 학원관광농장 일대 100ha의 보리밭에서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끝내 외면

차보훈처장 "지정 어렵다"...野, 5·18 단체 등 강력 반발

정부 입장을 대표하는 국가보훈처장이 공개석상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불가하다고 밝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국회 정부위 업무보고에서 "법령이나 고시, 행정규칙 등에 기념곡 지정에 관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25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과 관련해 기념곡 지정이 없고 애국가도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기념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아직 이 노래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 않아 현재는 정부 관례대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의견 수렴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곳곳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이날 정부위 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다른 국가기념

일에서도 노래를 제창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춘식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5월 관련단체와 논의한 뒤 올해 34주년 5·18 기념식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오는 18일 국회의원면담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따라 부르는 것은 허락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라며 "이달 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의 협의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지사 선거 당비대납 의혹 선관위 조사 착수

경선 대비 권리당원 확보 전쟁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에 나선 유력 후보들이 신당 통합 이전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를 대납한 의혹이 일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옛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력 후보들이 경선에서 3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비 6000원씩을 대납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는 전날인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으로부터 올해 초 옛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도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권

리당원이 대거 입당한 것에 주목하고 조직적인 당비대납 의혹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당비 대납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금품수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의혹은 A후보와 B후보 지역구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들 후보 지역구 인근에서 6000여만원의 역수가 대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 3~4일께 영광에서 1640만원, 장성 940만원, 함평 240만원, 광주 520만원 등 모두 3340만원이 입금됐고 2월28일에는 담양 560만원, 영광 550만원, 함평 540만원, 장성 380만원 등 2030만원이 추가로

입금됐다는 것이다.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진정서 형태로 관련 의혹이 추가로 중앙당에 제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수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500여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옛 민주당에선 한달 당비로 1000원을 내면 일반당원, 반년 당비 6000원을 내면 권리당원 자격을 얻는다.

옛 민주당 경선 규칙은 권리당원을 포함한 당원 50% 여론조사와 시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것으로 잠정결정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이들 후보들은 권리당원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할 처지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OSHIN UNIVERSITY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LIRIKOS

마린콜라겐으로 팍 차오르는 피부-
고농축 탄력 앰플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

주름만큼이나 심각한 피부노화의 징조는 바로 탄력저하-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은 농축하고 농축한 입도적 함량의
마린콜라겐이 무너진 피부에 힘있는 탄력을 채워드립니다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제품으로 뷰티저널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문의: (주)리리코스 고객센터 080-023-5454 www.lirikos.co.kr www.facebook.com/lirikos.kr